

1/10/16

설교 제목: 아이 성에서의 실패를 통해 얻은 교훈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여호수아 7:1-26

- (수 7:1)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 (수 7:2)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벤엘 동쪽 벤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 (수 7:3)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삼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 (수 7:4) 백성 중 삼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 (수 7:5) 아이 사람이 그들을 삼십육 명쯤 쳐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 같이 된지라
- (수 7:6)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 (수 7:7)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면 좋을 뻔하였나이이다
- (수 7:8)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절관주** 신 28:25
- (수 7:9)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절관주** 출 32:12, 출 32:12, 민 14:13
- (수 7:10)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 (수 7:11)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절관주** 신 7:26, 신 6:17

- (수 7:12)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 (수 7:13)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 (수 7:14)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뽐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뽐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뽐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 (수 7:15)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뽐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와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 (수 7:16)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뽐혔고
- (수 7:17)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뽐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뽐혔고
- (수 7:18)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뽐혔더라 **절관주** 행 5:1-10
- (수 7:19)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절관주** 삼상 6:5, 렘 13:16
- (수 7:20)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 (수 7:21)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이백 세겔과 그 무게가 오십 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 (수 7:22)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수 7:23)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수 7:24)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절관주** 수 15:7

(수 7:25)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절관주** 전 9:18

(수 7:26)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 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절관주** 삼하 18:17, 신 13:17, 삼하 21:14

본문이 기록된 여호수아서는 신명기적 가르침에 기반을 둔 책입니다.

신명기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철저한 인과응보 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는 책입니다.

신명기 28 장을 보시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하는 일마다  
저주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신명기의 가르침이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간증한 책입니다.

그러기에 여호수아서에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정복한  
31 개의 성읍 중 특별히 신명기의 가르침을 가장 잘 부각시킬 수 있는 여리고 성과 아이 성  
정복에 관한 사건을 대조시켜 다룬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경을 보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사실을 마음 속에 다시 한 번 새기도록 의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세번째 관문으로 아이성을 정복해야 했습니다.

첫번째 관문은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었고, 두번째 관문은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첫번째 관문인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함께 요단강을 건너는 일, 두 번째 관문인 철옹성같은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일, 두 가지 모두 이제 막 40 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할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들은 무사히 두번의 난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세번째 관문인 아이 성 정복이 주어진 것입니다.

세번째 관문인 아이 성 정복은 첫번째 관문이나 두번째 관문에 비해서 비교적 어려운 과제가 아니었습니다.

두번째 관문이었던 여리고 성은 난공불락이라고 불릴만큼 크고 견고한 성읍이었지만 거기에 비해 세번째 관문이었던 아이 성은 작고 보잘 것 없는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고 보잘 것없는 아이 성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대패를 했습니다.

(수 7:4) 백성 중 삼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수 7:5) 아이 사람이 그들을 삼십육 명쯤 쳐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 같이 된지라

영어 성경을 보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의 심정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At this the hearts of the people melted in fear and became like water.*

아이 성에서 대패를 당했을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여호수아는 두려움에 그들의 마음이 녹아져 물 같이 되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이래로 여지껏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한번도 실패를 경험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승승장구하여 가나안을 정복하는 동안 승리를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아이 성에서의 실패가 유일무이한 패배였던 것입니다.

그럼 어찌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작고 보잘 것 없었던 아이 성에서 유일무이하게 대패를 당하게 되었는지 의아하시죠?

보시겠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크고 견고한 성인 여리고 성을 기적적으로 정복하고 곧이어 아이 성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앞서 정탐꾼을 보냈고 여호수아는 그들의 보고에 따라 상대적으로 적은 수인 삼천 명 정도의 군사를 보내 아이 성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쉽게 생각했던 아이 성 공격에서 이스라엘은 생각지도 않은 대패를 당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장로들과 함께 애통해하며 여호와 귀앞에 엎드려 어찌된 영문인지를 묻습니다.

(수 7:6)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귀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수 7:7)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수 7:8)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수 7:9)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하나님께서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런 일이 생긴 원인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수 7:11)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수 7:12)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겨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가지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에서 너무나 큰 승리를 거두었기에 교만해져서 아이 성을 우습게 여겼다고 그래서 대패를 당하게 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 수도 있었겠지만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유와 함께 죄목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명령한 언약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문 첫 절부터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수 7:1)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께서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복해야만 했던 첫 성인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부치면서 단 한가지 조건 '헤렘'을 명령하셨습니다.

히브리어 '헤렘'은 모든 것을 온전히 다 바치라는 뜻입니다.

바쳐야 할 것이 생명체라면 죽여서 바치는 것이고 물건이라면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히 다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

여리고 성은 가나안의 첫 열매였습니다.

첫 열매를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는 첫 열매인 여리고 성에 헤렘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첫 열매인 여리고 성이 산 제물이 되어 가나안 땅에 속한 모든 것을 대신해 하나님께 드려지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첫 열매되신 예수님이 산 제물이 되어 우리 모두를 대신해 하나님께 드려진 것 같이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전쟁을 불이시면서 헤렘을 명령하신 경우는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첫 열매가 된 여리고 성이기에 여리고 성 만큼은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태 파악을 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사태 해결에 나섭니다.

(수 7:13)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수 7:14)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뽐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뽐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뽐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수 7:15)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뽐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지파별, 종족별, 가족별, 남자별 순으로 제비 뽑기를 시행했습니다.

4 번의 제비 뽑기로 유다 지파>세라 족속>삽디 가족> 아간의 순으로 범인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의 자백을 듣고 물증을 확인한 다음 흠친 외투, 금, 은 뿐만 아니라 그와 그의 아들, 딸, 소, 나귀, 양, 그의 장막에 속한 모든 것들을 아골 골짜기로 가지고 가서 사람은 돌려 쳐 죽이고 가축과 재물, 흠친 것들은 불태워 처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후에야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되었습니다.

(수 7:24)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수 7:25)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려 치고 물건들도 돌려 치고 불사르고

(수 7:26)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 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1. 아이 성에서의 패배는 온전히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이 성에서의 패배는 여리고 성에서의 승리로 인한 자만이나 교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아간은 단순히 물건을 훔치는 절도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 한 것입니다.

2.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기강을 확고히 하시길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막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 새로운 공동체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새로운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범죄를 엄격하게 다스림으로써 그 공동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기강을 잡아 놓으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발생했던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초대 교회를 섬기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에 들어 온지 얼마되지 않은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 발 앞에 가져다 놓고 성도들과 함께 쓰기로 한 일로 말미암아 교회 내에서 칭송과 존경을 받게 되자 내심 질투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소유하고 있던 밭의 일부를 팔아 얼마를 숨기고 사도들에게 그것이 밭을 팔아 받은 돈의 전부라고 속이며 나머지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성령을 속인 죄로 그 자리에서 연이어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과하지 않았나 할 정도로 이들을 가혹히 다룬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때가 초대 교회가 태동한 지 얼마 안되어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막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히 섬기도록 기강을 확고히 잡아 놓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3.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에서의 승리는 100% 당신의 공로였다는 것을 공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리고의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공로였습니다.

때문에 아무도 전리품을 취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이 전리품을 훔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건을 훔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완전한 공로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간이 전리품을 훔친 것은 여리고 성 정복에 자신의 공로도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여 자신도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대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100% 하나님의 은혜이고 100%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여기에 조금이라도 다른 공로를 가미하여 전리품을 취하고자 하면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런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4. 하나님께서는 불꽃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일거수 일수족까지, 아니 우리 마음 속까지 감찰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간은 혼자서 몰래 이 일을 행한 후 자신이 행한 일을 가족이외는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람 눈은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 눈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정확히 그 사실을 정확히 알고 계셨고 그를 찾아내어 벌할 것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르렀음에도 아간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죄를 숨기려 하지 말고 드러내어 하나님께 고백하는 길만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크고 작음을 가리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인 교회 생활 안에 들어 왔다고 해서 모두 가나안 땅인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차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나안인 교회안에 들어와 생활하는 사람 가운데도 아간같이 얼마든지 비참한 운명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 짓는 것을 결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은 불꽃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그렇지 못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평생 명심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